

케이스탯

2022년 12월 사회지표

■ 월 정기 지표

- _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올바른 방향’ 36%, 7%p 상승
- _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73%, 5개월 연속 70%대
- _ 정부 신뢰도 : ‘불신’ 72%, 소폭 하락
- _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 24%, 4%p 상승
- _ 정당 호감도 : 호감 정당 ‘있다’ 27%, 소폭 상승
- _ 다음 달 물가 전망 : ‘오를 것’ 62%, 11%p 하락
- _ 부동산 가격 전망 : ‘오를 것’ 19%, 조사 이래 최저치
- _ 주식 가격 전망 : ‘내릴 것’ 33%, 14%p 하락
- _ 자기 삶 평가 : ‘고군분투’ 66%, ‘고통’ 25%, ‘번창’ 9%

■ 12월 특별지표 : ‘행복’ 관련 국민 의식

- _ 개인 행복도 : 어제, ‘행복했다’ 46%, ‘걱정 많았다’ 54%
- _ 상대적 행복도 : ‘주변 사람이 나보다 행복해’ 70%
- _ 5년 후 개인 삶 전망 : 비슷 47% > 긍정 39% > 부정 14%
- _ 5년 후 대한민국 미래 전망 : ‘긍정’(28%) 하락, ‘부정’(27%) 상승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2년 12월 2일(금) ~ 12월 4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 본 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23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6\%$
가 중 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2년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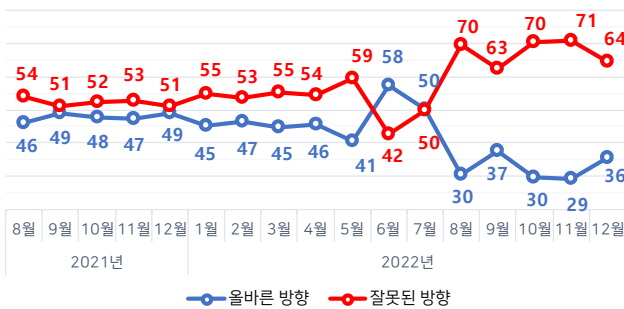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월 정기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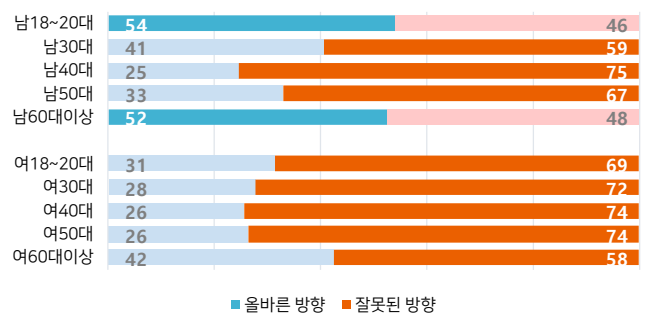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올바른 방향' 36%, 7%p 상승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 응답이 7%p 상승하며, 36%를 기록함
 - 2022년 12월 조사 결과, '올바른 방향' 36% vs '잘못된 방향' 64%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남자 40대 △여자 2050세대 △호남 △진보층 등에서 높았음
- '올바른 방향'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60대이상에 그쳤으나(보수층은 긍정/부정평가가 팽팽함), 지난 달에 비해 거의 모든 계층에서 긍정평가율이 상승함
 - 지난 달의 경우 모든 계층에서 '잘못된 방향'이 우세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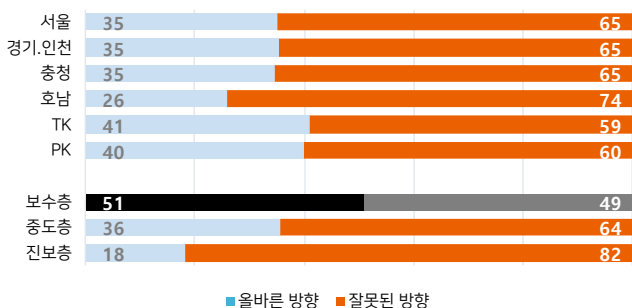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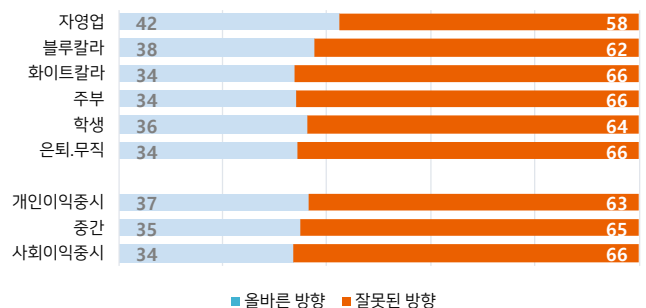
2022년 12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성/연령별
(단위:%)



2022년 12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12.04.조사,단위:%)



12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직업별,이익증시별
(자료:케이스탯,2022.12.04.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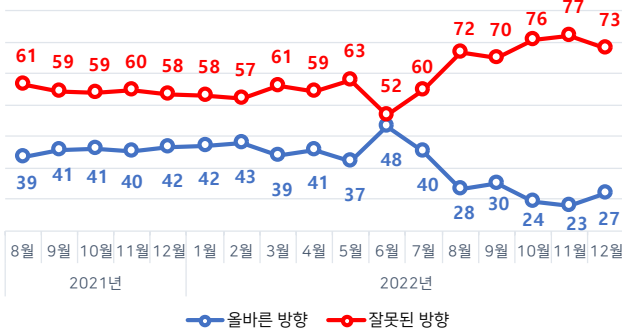
Kstat Point

-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에 대한 긍정평가가 큰 폭 상승하며, 2개월간의 연속된 하락세가 꺾인 모습임
 - : 전 월과 비교해, 남자 30대와 진보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긍정평가가 상승함
- ☑ 긍정평가 상승을 주도한 계층은 남자 20대와 60대이상, 보수층 등임
 - :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높은 기대감을 표했던 계층으로, 지난 2개월간의 부정평가 우위에서 긍정평가 우위로 회귀한 양상임
- ☑ 하지만 여전히 국민전체적으로 '잘못된 방향'이 우세해, 지금의 대한민국에 대한 우려감이 큰 상황임
 - : 윤석열 정부 출범에 큰 기여를 했던 TK 지역에서도 '잘못된 방향'이 우세한 점이 주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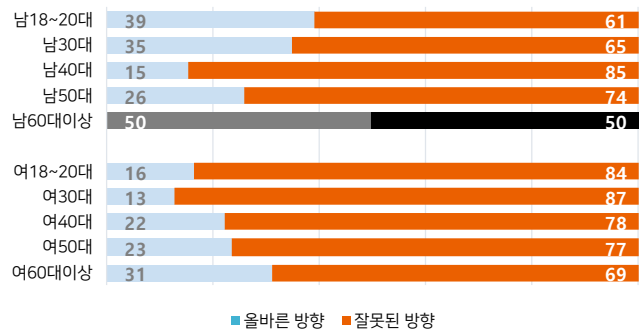
□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73%, 5개월 연속 70%대

- 대한민국 경제 방향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70%대의 높은 수치를 유지함
 - 12월 조사 결과, '올바른 방향' 27%, '잘못된 방향' 73%로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잘못된 방향'이 우세하며,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40대 △여자 2050세대 △호남 △진보층 등임
- '올바른 방향' 응답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계층은 △남자 2030세대 △여자 60대 이상 △PK △보수층 등임
 - △남자 60대 이상은 긍정/부정 응답이 팽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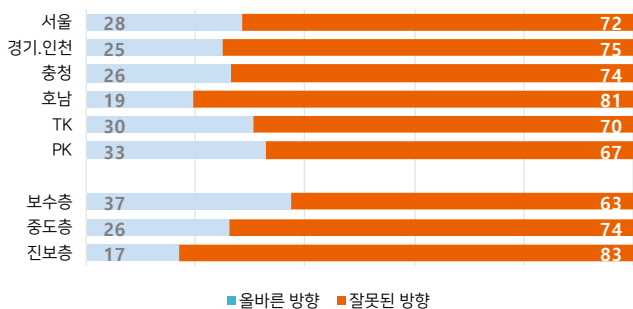
경제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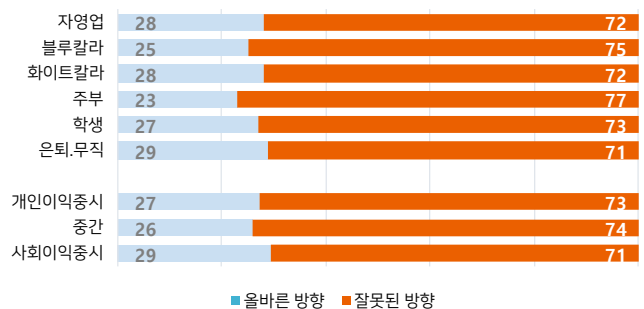
2022년 12월 경제 방향성 평가: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2022년 12월 경제 방향성 평가: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12.04.조사,단위:%)



2022년 12월 경제 방향성 평가: 직업별,이직증시별 (자료:케이스탯,2022.12.04.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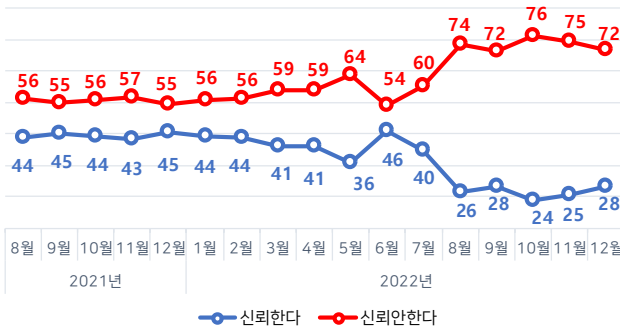
Kstat Poin

- ☑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우리나라 경제 방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경제 전망이 다수를 차지할 만큼 경제전망이 어두운데, 국민 여론 역시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임
 - 지난 7일 기획재정부와 국내 주요 금융·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개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 수립 간담회에서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 소비 둔화 등으로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주요 글로벌 IB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평균 1%대 초반(1.1%)으로 집계됨(총 9개 IB)
 - (2023년 경제 전망치) 노무라 -1.3%, 씨티 1.0%, 바클레이즈 1.3%, 골드만삭스·JP모건 1.4%, UBS 1.1% 등
 - 나아가 지난 12월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내년 세계 경제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고 밝혀, 내년 우리 경제의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우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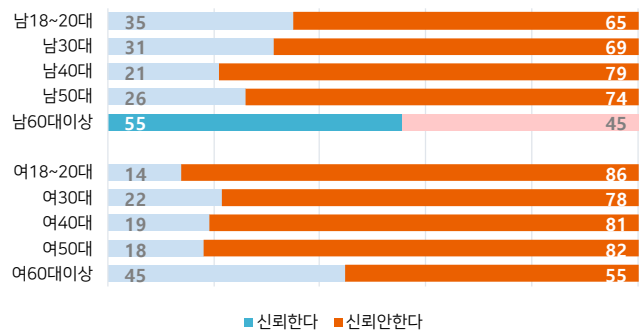
□ 정부 신뢰도 : '불신' 72%, 소폭 하락

-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개월 연속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70%대를 웃돌고 있음
 - 12월 조사 결과, 정부를 '신뢰한다' 28% vs '신뢰하지 않는다' 72%
- 계층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남자 40대 △여자 2050세대 △호남 △진보층 등에서 두드러짐
- '신뢰한다'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60대 이상뿐인 가운데,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여자 60대 이상 △TK △보수층 △자영업자, 은퇴·무직자 등이었음

정부 신뢰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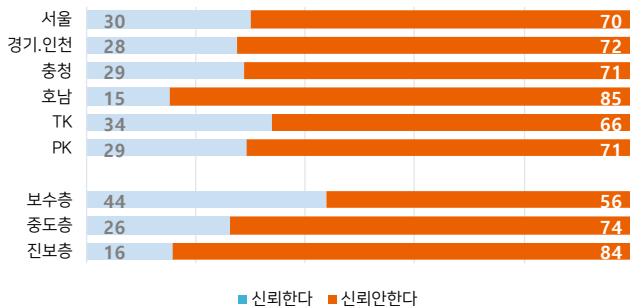


2022년 12월 정부 신뢰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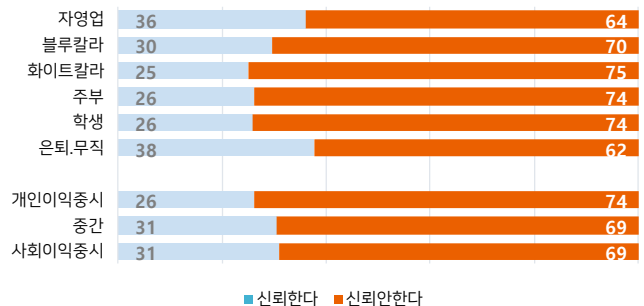
2022년 12월 정부 신뢰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12.04.조사,단위:%)



2022년 12월 정부 신뢰도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12.04.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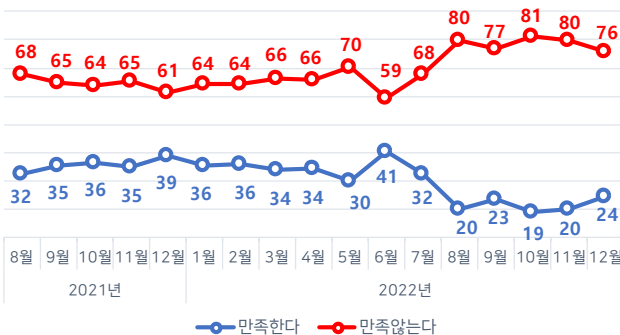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정부 신뢰도가 5개월 연속 30%를 밑도는 가운데, 최근 2개월 연속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임
- ☑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의 주요 이유로 꼽히는 공정·상식 부재(또는 의구심), 경험과 능력 부족 등에 대한 평가가 개선되면서 정부 신뢰도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 :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정부의 전문성·공정성 등으로부터 형성되며, 그러한 국민적 신뢰는 대통령 국정운영 동력으로서 작용하는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참고할 수 있음
 - : 최근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율을 살펴보면 11월 1주 29%에서 매주 소폭 상승해 12월 2주 현재 33%로 상승함(자료, 갤럽)
 - : NBS 조사에서도 소폭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긍정평가 이유로 '공정하고 정의로워서'를 꼽는 비중이 높아짐
 - : 또한 부정평가 이유 중에서는 '경험과 능력 부족'이 점차 하락함
- ☑ 향후 정부신뢰도가 지금과 같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 : 2023년 경제전망이 어둡고, 윤석열 정부가 현 국정운영 기조를 유지할 경우, 극적인 상승은 힘들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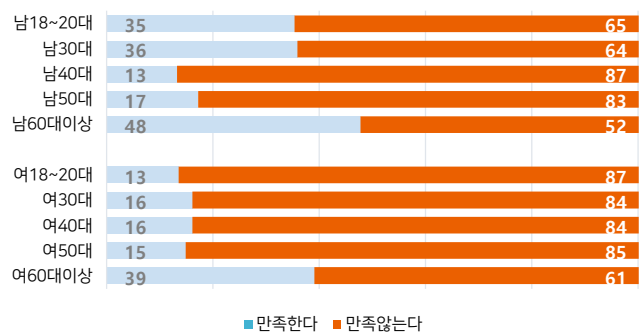
□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 24%, 4%p 상승

- 정부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4%로 3개월 만에 20%를 웃도는 결과를 보임
- 전 계층에서 '만족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하며, 특히 △남자 4050세대 △여자 2050세대 △호남 △진보층 등에서 두드러짐
- '만족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6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 △충청 △보수층 △자영업자, 은퇴·무직자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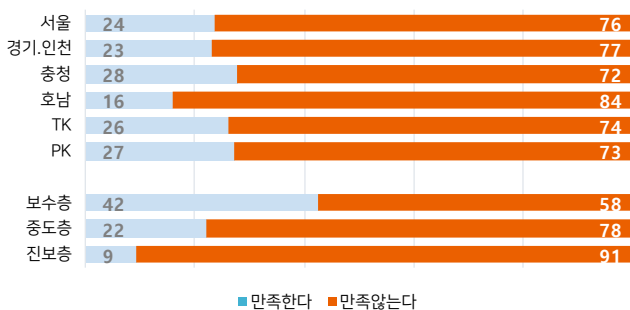
정부정책 만족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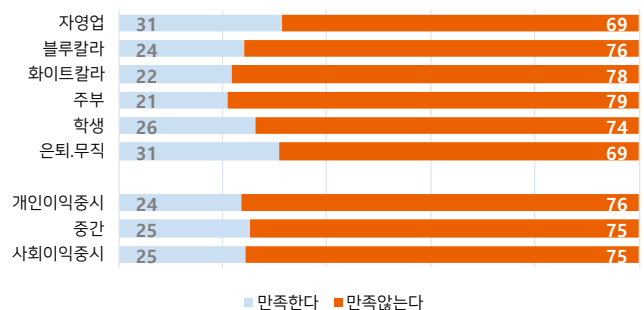
2022년 12월 정부정책 만족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2022년 12월 정부정책 만족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12.04.조사,단위:%)



2022년 12월 정부정책 만족도 : 직업별,이익증시별 (자료:케이스탯,2022.12.04.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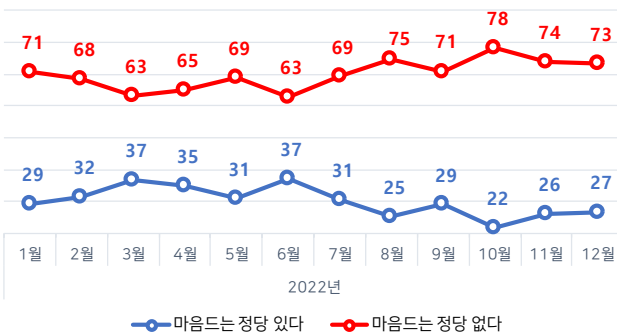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정책 만족도가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최근 5개월 중에서는 가장 높음
 - : 이는 진보층, 학생 등을 제외한 계층 전반에서 긍정평가가 상승한 결과임
 - : 최근 정부가 '수출전략회의'와 '방산수출전략회의' 등을 열어 '수출 활성화'라는 경제위기 해법과 '세계 5대 수출강국',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달성이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한 점이 경기침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보임
 - : 정부는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왔으며, 이외에도 '비상경제차관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최근까지 꾸준히 열고, 경제·금융 시장 상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왔지만, 국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음
- ☑ 그 가운데,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남녀 60대 이상, 보수층 등에서 긍정평가가 큰 폭 상승한 점이 주목됨
 - : 전월 대비 긍정평가 상승 폭 : 남자 60대 이상 +13%p, 여자 60대 이상 +9%p, 보수층 +9%p
 - : 노동·경제 정책의 일환인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과 관련한 긍정적인 평가가 다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 갤럽 조사 결과, 정부가 노동계 파업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응답(31%)이 60대(48%), 70대 이상(46%), 보수층(59%) 등에서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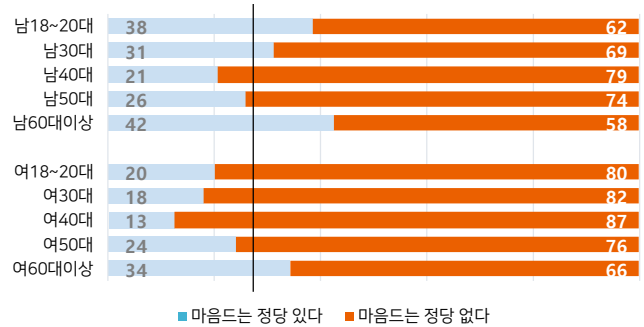
□ 정당 호감도 : 호감 정당 '있다' 27%, 소폭 상승

- 정당 호감도 관련,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다'는 응답이 1%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25%를 웃돌고 있음
 - 12월 조사 결과, '마음에 드는 정당 있다' 27% vs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73%
- 모든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40대 △여자 2040세대 △서울 △중도층 등으로 나타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선은 국민 전체 수치를 의미함
- 상대적으로 긍정 응답이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6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 △호남 △보수층, 진보층 △사회이익 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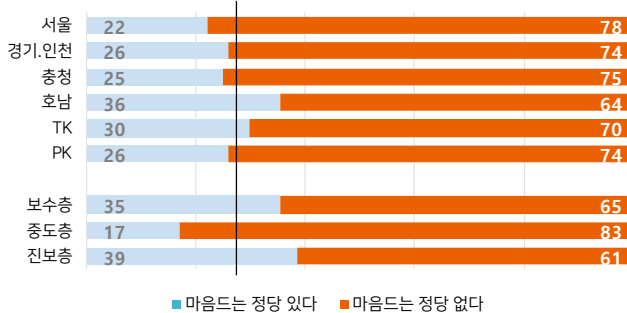
정당 호감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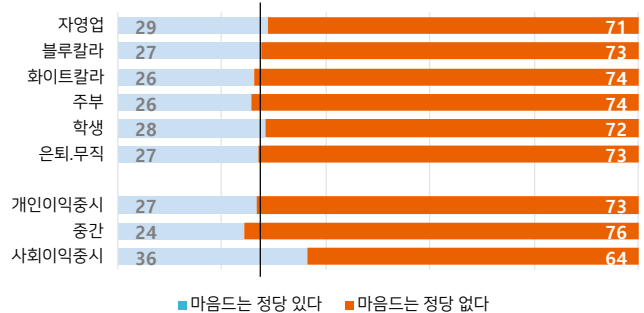
2022년 12월 정당 호감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2022년 12월 정당 호감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12.04.조사,단위:%)



2022년 12월 정당 호감도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12.04.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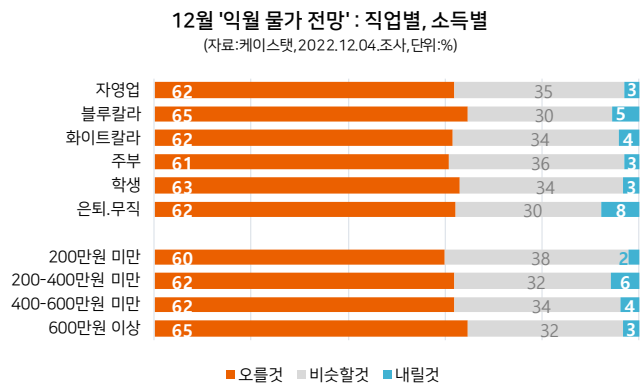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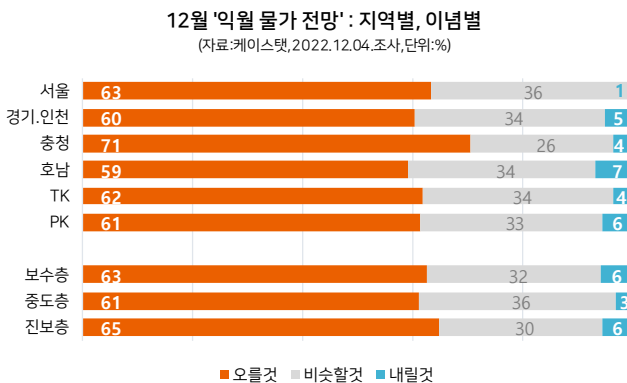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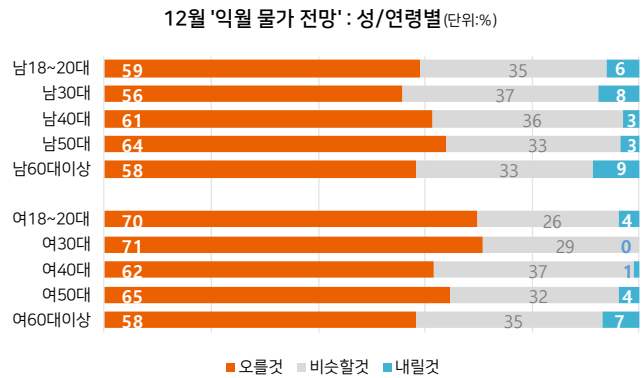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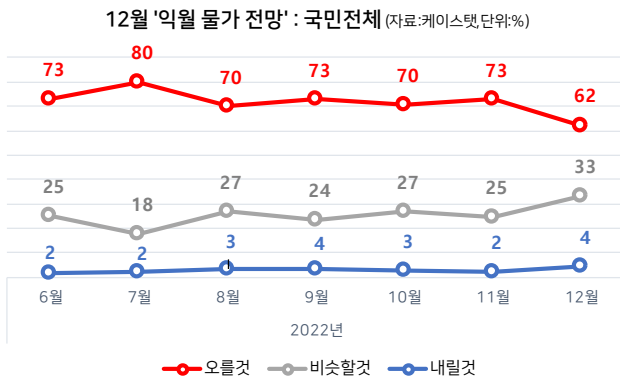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정당 호감도가 2개월 연속 25%선을 상회하고 있음
 - : 이번 달 정당 호감도는 남자 18~20대(+16%p), 남자 60대 이상(+8%p), 여자 18~20대(+6%p), TK(+6%p), 학생(+11%p) 등을 중심으로 대폭 상승했음
- ☑ 한편, 국민의힘 지지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간 정당 호감도 증감이 서로 엇갈린 결과를 보임
 - : 국민의힘 주요 지지층인 TK(+6%p)와 보수층(+4%p) 등에서는 긍정 응답이 증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호남(-1%p), 진보층(-3%p) 등에서는 긍정 응답이 감소함
 - :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가 점차 부각되는 가운데 친명-비명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점이 지지층의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국민의힘은 내년 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대 룰 변경과 관련해 친윤-비윤간 계파 갈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번 달의 긍정적 여론이 다음 달에도 이어질지 미지수임

□ 다음 달 물가 전망 : '오를 것' 62%, 11%p 하락

- 다음 달 물가 전망에 대해 '지금보다 오를 것' 응답은 대폭 하락하고, '비슷할 것' 응답은 대폭 상승, '지금보다 내릴 것' 응답은 소폭 상승하며 물가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12월 조사 결과, '지금보다 오를 것' 62%, '지금과 비슷할 것' 33%, '지금보다 떨어질 것' 4%
- 모든 계층에서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여자 2030세대 △충청 등에서 높았음
- 한편,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우세한 계층은 △남자 30대 △여자 40대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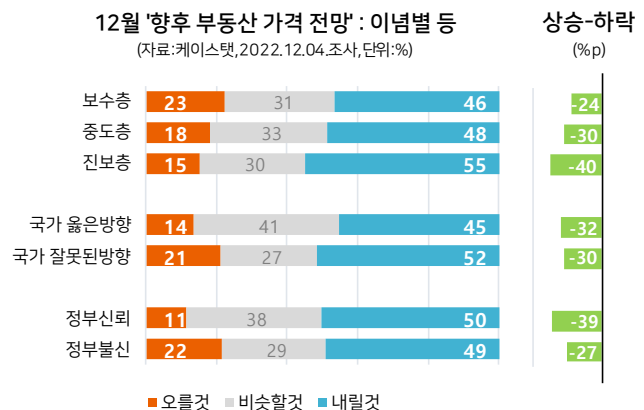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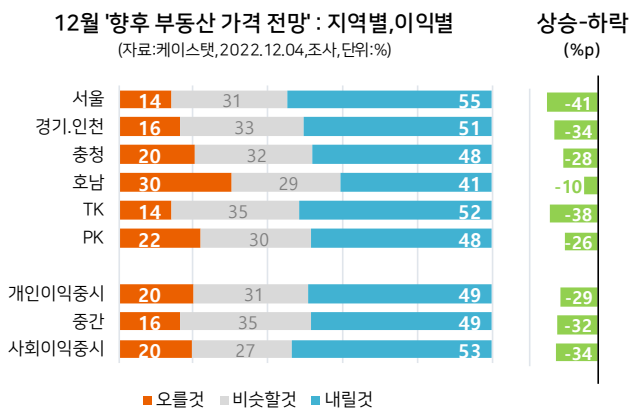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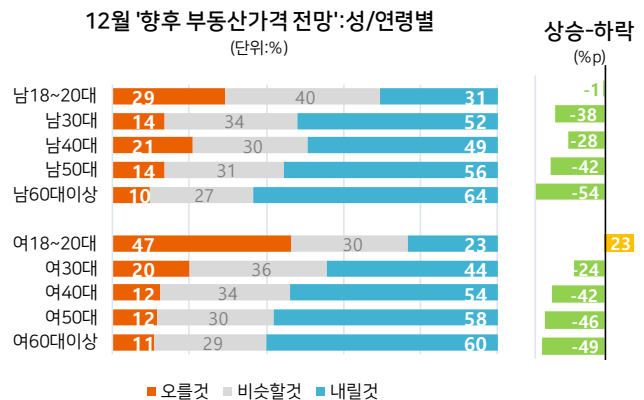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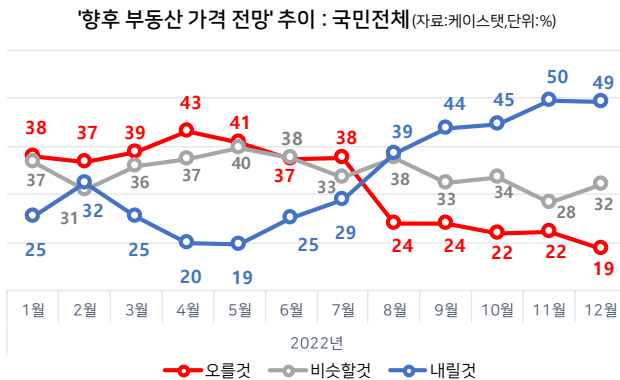


Kstat Point

- ☑ '물가상승' 전망 여론이 대폭(-11%p) 감소하며, 지난 6월 조사 이후 처음으로 60%대를 기록함
 - 실제로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으며, 국민의 체감물가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물가상승률이 지난 7월(6.3%) 정점을 찍은 후, 8·9·10월(5.7%·5.6%·5.7%) 3개월 연속 5% 중반을 웃돈 후 11월에 5.0%로 큰 폭 하락함
 -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 또한 지난 4월(5.7%) 이후 처음으로 5%대(5.5%)로 내려옴
- ☑ 그러나 5%대의 고물가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으며, 기조적 물가 흐름 또한 상승하고 있어 다음 달 여론의 향방은 미지수임
 - 지난 2일,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가 내년 초까지 5%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음
 -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품목 제외) 또한 지난 9월(4.1%) 이후 2개월 연속 0.1%p씩 상승함

□ 부동산 가격 전망 : '오를 것' 19%, 조사 이래 최저치

-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 '지금보다 오를 것' 응답이 지난 4월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이어오며, 조사 이래 처음으로 20%를 밑도는 결과를 보임
 - 12월 조사 결과, '지금보다 내릴 것' 49%, '지금과 비슷할 것' 32%, '지금보다 오를 것' 19% 순으로 조사됨
- 계층별 '차이'(오를 것-내릴 것)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해 부동산 가격 하락 전망이 높은 가운데, 특히 △남자 30대, 50대 이상 △여자 40대 이상 △서울, TK △진보층 △정부 신 퇴층 등에서 뚜렷했음
- 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망한 계층은 △여자 18~20대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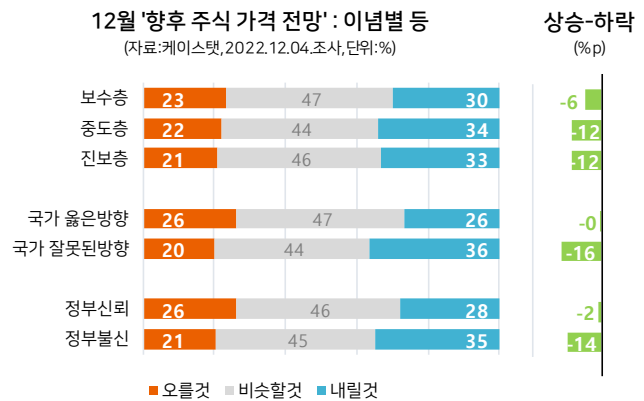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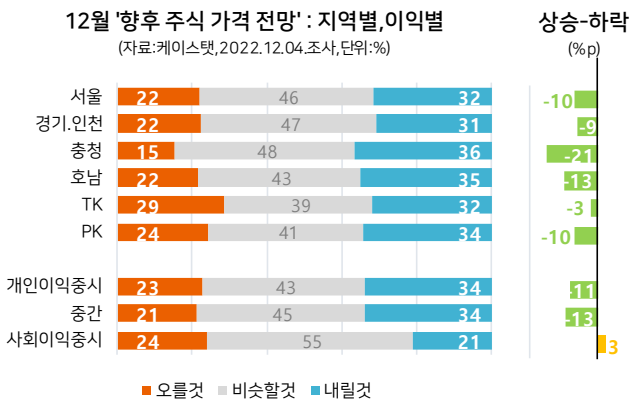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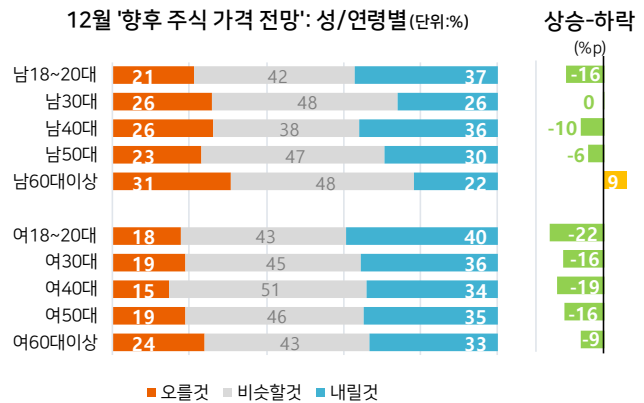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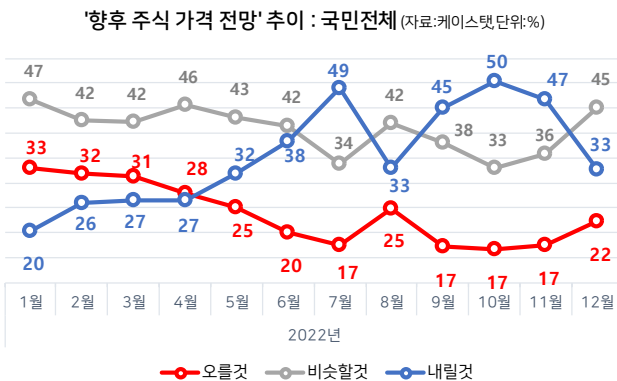


Kstat Point

- ☑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여론이 최근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이번 달 19%를 기록함
 - : 이는 국민 대부분이 어두운 부동산 시장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을 방증하는 결과임
 - : 지난 12월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주택 매매가가 전년 말 대비 3.3% 하락하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도 5.0%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음
 - : 또한, 올해의 주택 거래량(약 54만호)이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시작 시점 2006년 이후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했음
- ☑ 올해 초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임

□ 주식 가격 전망 : '내릴 것' 33%, 14%p 하락

- 주식 가격 전망 관련, '지금보다 내릴 것' 응답이 대폭 하락하고, '지금과 비슷할 것' 응답은 대폭 상승하며, 4개월 만에 '지금과 비슷할 것' 전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12월 조사 결과, '지금과 비슷할 것' 45%, '지금보다 내릴 것' 33%, '지금보다 오를 것' 22% 순으로 조사됨
- '오를 것'에서 '내릴 것'을 뺀 '차이'는 전 계층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해 주가 하락 전망의 우위세가 뚜렷한 가운데, 주가 하락('차이'가 마이너스)을 전망하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여자 2050세대 △충청 △국가방향 부정평가층 등임
- 주가 상승을 높게 전망한 계층은 △남자 60대 이상 △사회이익 중시층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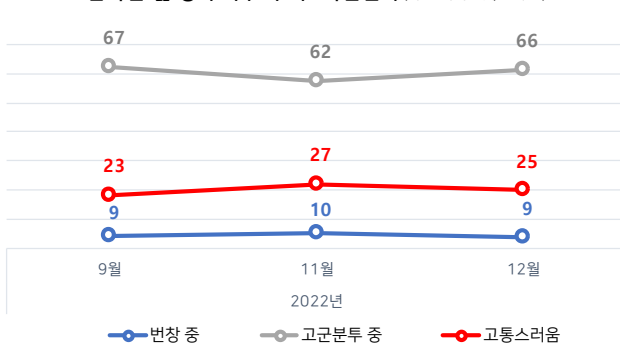
Kstat Point

- ☑ 증시 회복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형성되며, '주가 하락' 전망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임
 - : 지난 10월~11월 중순까지 베어마켓 랠리(약세장 속 반등)가 나타난 가운데, 지난달 30일 미 연준(Fed)이 금리 인상의 속도 완화를 시사하자, 산타랠리(연말·연초 주가 상승세를 보이는 현상)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으로 판단됨
 - : 실제로 지난 1일, 코스피 지수가 지난 8월 중순경 이후 처음으로 장중 2500대를 회복했음
 - :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 또한 1,300원선을 밑돌았음
- ☑ 다만, 이번 조사 기간(12월 2일~4일)동안 일시적으로 형성된 여론일 가능성도 있는바 향후 여론의 향방이 주목됨
 - : 지난 두 달과 달리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 달 들어 '셀코리야'로 돌아서며,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음
 - : 12일 기준, 코스피 지수가 지난 1일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2300선에 머물러 있으며, 외국인은 같은 기간 동안 약 1조 2,760억원을 순매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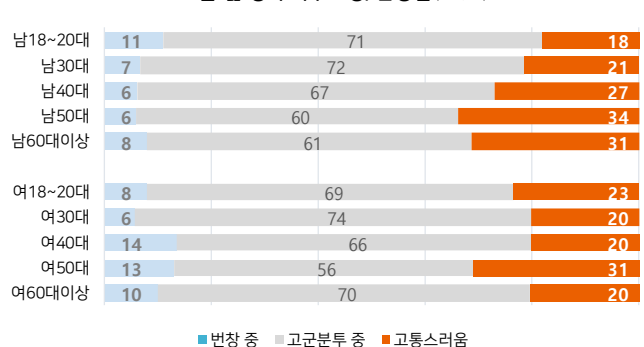
□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 '고군분투' 66%, '고통' 25%, '번창' 9%

- 우리 국민들의 '삶 평가 지수'를 유형화해 살펴본 결과,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고통스럽다' 응답이 지난 달 대비 2%p 하락함
 - 12월 조사 결과, '고군분투하고 있다' 66%, '고통스럽다' 25%, '번창하고 있다' 9% 순으로 나타남
- ※ 현재와 약 5년 후의 자기 삶의 단계를 '최악' 0점 ~ '최고' 10점 사이에서 평가한 후, 3가지로 유형화함
 - ① 번창하고 있다(Thriving) : 현재 7점 이상, 미래 8점 이상
 - ② 고군분투하고 있다(Struggling) : 유형 1·3 외 전체
 - ③ 고통스럽다(Suffering) : 현재·미래 4점 이하
- '삶 평가 지수'의 유형별 비중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고통스럽다'는 유형이 우세하고,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50대 이상 △여자 50대 △블루칼라, 은퇴·무직자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층 등임
- '번창하고 있다'는 유형이 더 우세한 계층은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뿐이며, 전체평균(9%)을 웃돌며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계층은 △여자 4050세대 △진보층 등이었음

한국민 '삶 평가 지수'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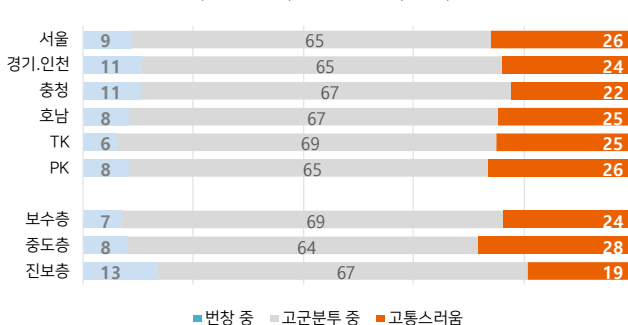


12월 '삶 평가 지수' : 성/연령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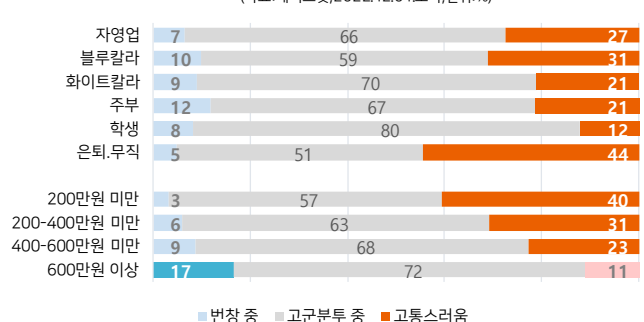
12월 '삶 평가 지수' : 지역별, 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12.04.조사,단위:%)



12월 '삶 평가 지수' : 직업별, 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2.12.04.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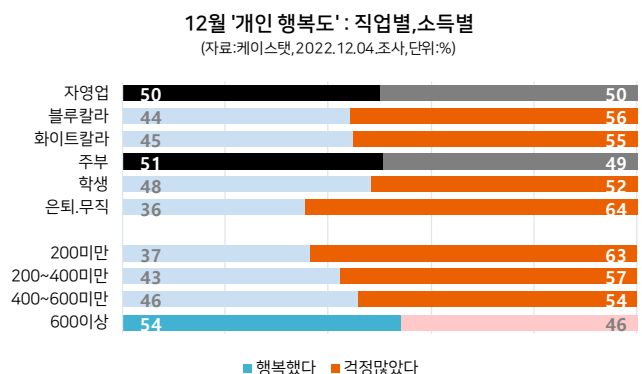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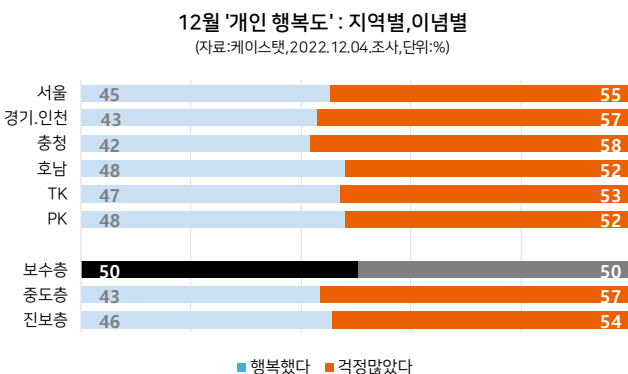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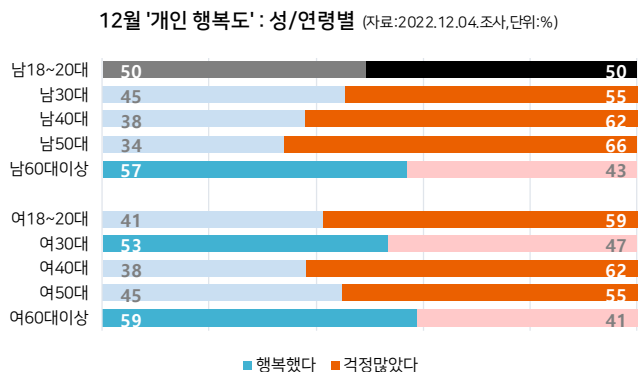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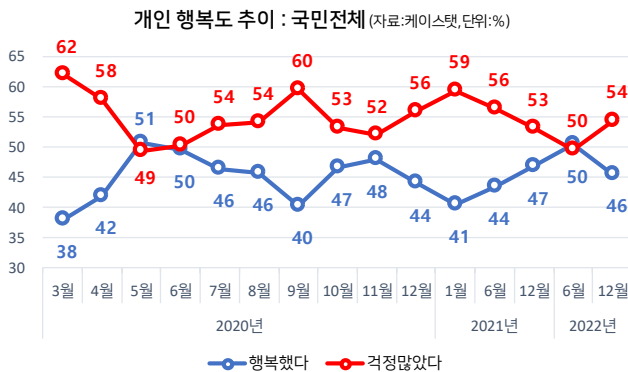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 10명 중 겨우 1명 정도만이 자기 삶이 '번창하고 있다'고 생각함
 - :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그만큼 국민의 삶이 팍팍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해석됨
- ☑ 한편, 전 계층 중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층의 긍정 응답이 가장 높은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경제적 고통이 저소득층일수록 큰 현실을 방증하는 지점임

12월 특별지표 : '행복' 관련 국민 의식

□ 개인 행복도 : 어제, '행복했다' 46%, '걱정 많았다' 54%

- 국민 절반 이상(54%)이 어제 하루 '걱정 많았다'고 응답했으며, 지난 6월 대비 국민 행복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12월 조사 결과, '행복했다' 46% vs '걱정 많았다' 54%
- '행복했다'는 응답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60대 이상 △여자 30대, 60대 이상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등이었음
- '걱정 많았다' 응답이 특히 더 높은 계층은 △남자 4050세대 △여자 18~20대, 40대 △은퇴·무직자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등으로 나타남
- 한편, △남자 18~20대 △보수층 △자영업자, 주부 등은 두 응답이 비등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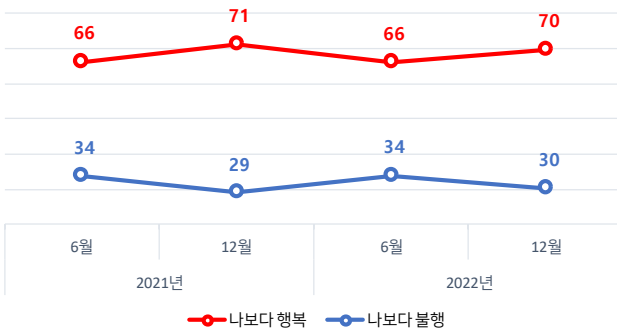
Kstat Point

- ☑ 지난 1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어제 하루 '행복했다'는 응답이 이번 달 들어 하락함
- ☑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 경제위기 여파로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줄고, 내년 경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 행복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 행복과 삶의 질과 대치되며, 삶의 질은 소득 규모의 영향을 받는 만큼, 행복과 소득은 상관성이 높음
 - : 지난 1월 초 전문 연구기관 컨슈머인사이드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월평균 개인소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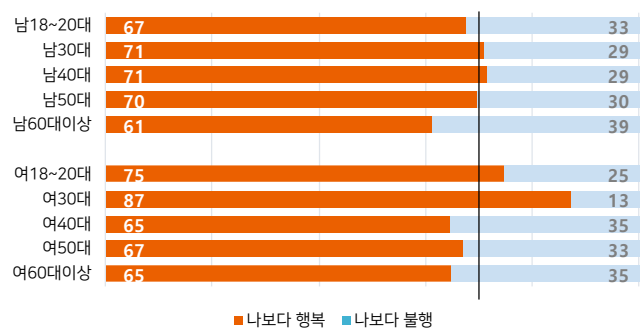
□ 상대적 행복도 : '주변 사람, 나보다 행복해' 70%

- 국민 10명 중 7명은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행복한 것 같다'(70%)고 생각함
 - '나보다 불행한 것 같다'는 응답은 30%로 조사됨
- 모든 계층에서 '주변 사람이 나보다 행복한 것 같다' 응답이 더 높았으며, 특히 △여자 2030세대 △호남 △주부 등에서 두드러짐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선은 국민 전체 수치를 의미함
- '주변 사람이 나보다 불행한 것 같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6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 △진보층 △자영업자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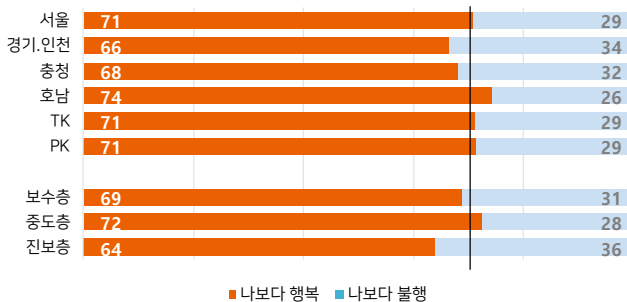
나와 주변사람 행복 비교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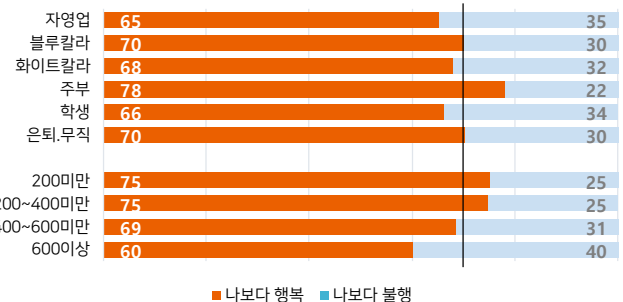
12월 '나와 주변사람 행복 비교' : 성/연령별 (단위:%)



12월 '나와 주변사람 행복 비교'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12.04.조사,단위:%)



12월 '나와 주변사람 행복 비교' : 직업별,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2.12.04.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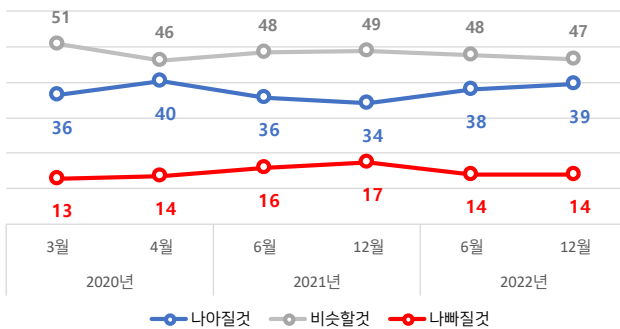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전 국민 중 30%만이 주변 사람보다 자신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함
- : 이러한 생각은 특히 60대 이상과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뚜렷했음
 - : 작년 6월 조사 이후, '주변 사람이 나보다 불행한 것 같다'는 응답이 남녀 60대 이상,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층에서 전체 평균을 5%p 이상을 웃돌 ('21.12.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제외)
 - : '21.6., 평균 34%, 남자 60대 이상·여자 60대 이상·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층 각 40%·39%·44%
 - : '21.12., 평균 29%, 각 34%·35%·31%
 - : '22.6. 평균 29%, 각 39%·39%·45% / '22.12., 평균 30%, 각 39%·35%·40%
 - :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느끼는 상대적 행복감의 이면에는 경쟁 심리와 무언가를 얻거나 가지고자 하는 욕심·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행복함을 느끼며, 고소득층의 경우는 경제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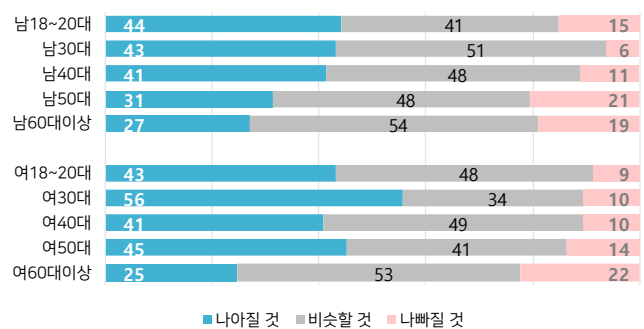
□ 5년 후 개인 삶 전망 : '비슷' 47% > '긍정' 39% > '부정' 14%

- 5년 후 개인 삶에 대한 국민 전망은 '지금과 비슷할 것' 47%, '지금보다 나아질 것' 39%, '지금보다 나빠질 것' 14% 순으로 지난 6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거의 모든 계층이 긍정적으로 전망(나아질 것)나빠질 것)하고 있으며, 특히 △남자 18~20대 △여자 30대, 50대 △진보층 △학생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등이 긍정적이었음
 - 긍정 전망이 부정 전망보다 낮은 계층은 △은퇴·무직자에 불과했음
- 한편, 상대적으로 '긍정 전망'이 낮은 계층은 △남자 5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 △호남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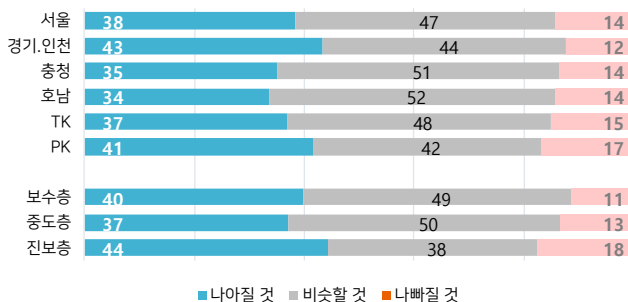
5년 후 개인 삶 전망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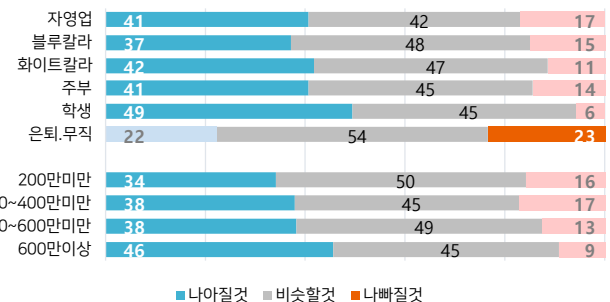
12월 '5년 후 개인 삶 전망' : 성/연령별 (단위:%)



12월 '5년 후 개인 삶 전망'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12.04.조사,단위:%)



12월 '5년 후 개인 삶 전망' : 직업별,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2.12.04.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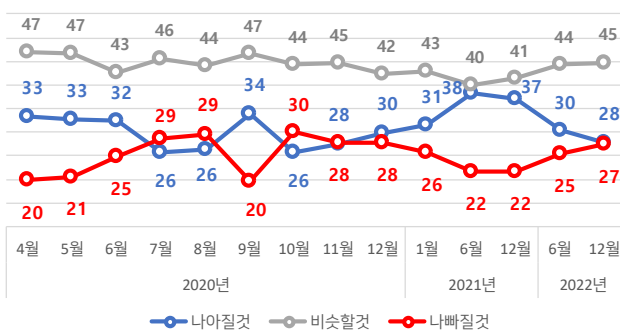
Kstat Point

- ☑ 5년 후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여론이 지난 6월보다 소폭(+1%p)이나마 증가함
 - '개인 행복도'와 '상대적 행복도'는 지난 6월 대비 각각 4%p씩 하락하며, 국민의 행복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 것과 반대로 미래 삶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은퇴·무직자를 제외한 전 계층에서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보다 높은 가운데, 미래 삶은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계층 별로 긍정 응답의 변화 폭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은 5년 후에는 지금보다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또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나아질 것' 응답이 큰 폭 증가한 계층은 남자 40대(+17%p), 진보층·주부(+10%p씩) 등이었고, '나아질 것' 응답이 큰 폭 하락한 계층은 남자 18~20대(-13%p), 충청(-9%p), 호남(-10%p), 은퇴·무직자(-11%p)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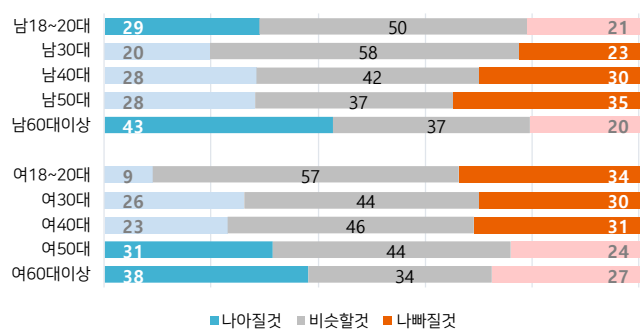
□ 5년 후 대한민국 미래 전망 : '긍정'(28%) 하락, '부정'(27%) 상승

- 5년 후 대한민국 미래 전망에 대해 '지금과 비슷할 것'(45%) 응답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은 가운데, 작년 6월 이후 '나아질 것'(28%) 응답은 하락세, '나빠질 것'(27%) 응답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 계층별 긍·부정 전망('나아질 것'과 '나빠질 것' 응답률 비교)의 우세가 엇갈리는 가운데, '긍정 전망'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6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 △보수층 △자영업자, 주부 등이었음
- '부정 전망' 응답의 경우, 특히 △남자 50대 △여자 18~20대 △호남 △진보층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층 등에서 두드러짐

5년 후 대한민국 전망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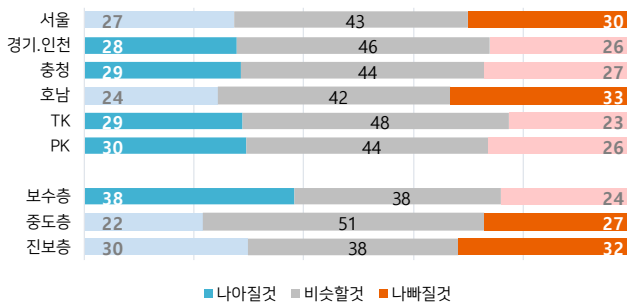


12월 '5년 후 대한민국 전망' : 성/연령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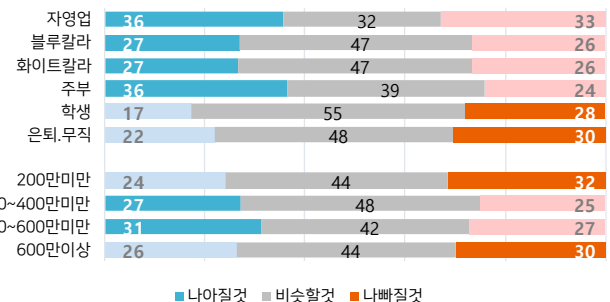
12월 '5년 후 대한민국 전망'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12.04.조사,단위:%)



12월 '5년 후 대한민국 전망' : 직업별,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2.12.04.조사,단위:%)



Kstat Point

☑ 2022년 들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확대됨

- : 지난 6월 이후 대한민국의 전반적 방향성에 대한 여론이 크게 출렁이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지금의 국가 상황에 대한 불안정감이 5년 후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회의와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임
- : 올해 6~12월 대한민국 방향성에 대한 긍정평가 변화 폭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6월 58%를 기록한 후 -8%p → -20%p → +7%p → -7%p → -1%p → +7%p와 같이 변화함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가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65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65호는 『속담.명언.유행어 등에 대한 국민생각』이라는 주제로 12월 22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